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3. 20.(화) / 총 5매(본문4)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창기 • ☎ (044) 201-3847, 3934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2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0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산학연 자율협력주행 연합체 발족...일자리신사업 모델 창출 기대 사업화 가능한 기술 분과 우선 구성...인프라데이터공유시험환경 등 적극 지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3월 21일(수)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산학연이 함께하는 「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*」를 발족했다.

* 국토부장관, 민간(4인) 공동의장, 자동차·인프라·정보통신 등 100여 개 기관 참여

○ 이번 행사는 조정식 국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동차·전자·통신 관련 대·중소기업, 도로공사, 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.

□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2020년~2022년경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으로,

○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고, 세계시장 규모가 2020년 1,89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1,520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*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.

* 완전자율차의 전 세계 신차 점유율은 '30년 41%, '35년 75% 차지 전망(Navigant Research)

-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·사물인터넷·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서,
 -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, 구글, 애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업체까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합종연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.
 - * 자율주행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위해 엔비디아와 모빌아이 진영 구분 (엔비디아) 도요타, 테슬라, 포드 등 (모빌아이) BMW, 닛산, GM 등
-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,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동차·인프라·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함께 「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」를 발족하게 됐다.
 - 협의회는 당장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C-ITS(통신), 보안, 지도 3개의 기술 분과로 우선 구성되었으며,
 - 기술 분과위 내부 기술교류를 시작으로 인프라 관련 표준과 인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인프라 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.
 - 더불어,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기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(R&D) 설명회, 전문가 컨설팅, 데이터 공유, 시험환경 제공 등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, 정기적으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, 인프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 이슈와 정부정책 방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.
 - 특히, 정보 접근성이 약한 중소기업이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.

* 온라인 커뮤니티(홈페이지)를 구축하여 업계의 의견수렴, 상호 정보 공유 등

- 향후에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과를 발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오늘 행사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, 발족식에 이어 열리는 1차 학술 토론회에서 자율협력주행 관련 주요 기업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을 소개했다.

-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기반 자율주행, 인프라와 결합된 자율협력주행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, 2021년까지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무인셔틀버스, 로봇택시 등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개발 계획을 소개했다.

- 삼성전자는 신규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5G와 커넥티드 카의 비전을 제시하고, 통신 인프라, 반도체, 차량 단말기가 결합된 자율주행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소개했다.

- SK텔레콤은 자율주행을 위한 초정밀지도와 5G 통신을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 부문에 집중할 계획으로, 케이시티(K-City)에서 5G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를 발전시켜 중소기업과 상생·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.

* K-City 5G 산학연 협력모델 예시: SKT(5G 통신)-교통안전공단(자동차안전)-서울대(자율차 제어)-성우모바일(자율버스시스템)-지오스토리(정밀도로지도)-유엔젤(관제서버)-위비즈넷(관제S/W)-세스트(통신서버)-쿠도커뮤니케이션(지능형CCTV)

- 중소기업인 이씨스는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인프라, 통신부품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, 쉘컴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현황을 소개했다.
- 4월에 개최할 2차 학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 보험제도, 자율주행차 제작·운영 관련 가이드라인(안), 도심 스마트 인프라 구축시 민관 협력 방안 등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.
- 정부는 「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」 운영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 뿐만 아니라 인프라, 소프트웨어, 정보통신, 교통서비스 등 관련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차량 단말기 개발·확산, 정밀지도·통신 기지국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유 서비스(카 셰어링), 무인셔틀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면 다수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“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다소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있지만,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인프라,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다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”면서,
- “본 협의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같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”고 당부했다.

붙임 : 「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」 발족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계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기술과 김창기 사무관(☎ 044-201-39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 요

- (時/所) '18. 3. 21(수), 09:10 ~ 12:00 / 더 케이호텔(서울 양재)
- (주최/주관) 국토교통부/한국도로공사
- (참석자) 국토부(장관님), 도공, 교통안전공단, 교통연구원, 현대차, 삼성전자, SK텔레콤 등 대중소기업, 벤처·스타트업 400여명

□ 세부 프로그램(안)

시 간	행 사 내 용	비 고
【 1부 : 협의회 발족식 】		
09:10~09:30	· 등 록	
09:30~09:40	· 개회선언	국토교통부
09:40~10:00	· 치사 및 축사 ① (치사) 장관님 ② (축사) 국회의원, 현대차, 벤처협회 임원사	
10:00~10:05	· 자율협력주행 협의회 홍보영상 시청	
10:05~10:15	· 축하공연(레이저 퍼포먼스)	
10:15~10:20	· 협의회 발족 선포 세리머니	
10:20~10:30	· 내빈 기념촬영	
【 2부 : 학술 토론회 】		
10:40~11:20	·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 및 사업계획 ① 자율차 기술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 ② Connectivity 비전 ③ 자율주행시대의 통신기술 ④ 벤처기업 기술현황 및 애로사항	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T 이씨스
11:20~12:00	·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감 토크 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② 자율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계획 ③ 우선 추진과제 발굴 ④ 기타 건의사항	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
12:00~	· 폐 회	